

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 유대교, 세션 2, 유대

역사 재구성을 위한 자료

© 2024 토니 토마시노(Tony Tomasin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토니 토마시노(Tony Tomasino)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유대 역사 재구성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이 시기의 데이터가 많다는 점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말이 많았기 때문에 400년의 침묵이라는 문구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 시간 동안 전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와 그 자료의 품질, 특성, 그리고 그것이 중간기 동안 일어났던 사건, 문화 및 발전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간.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중 하나는 왜 우리가 이것을 400년의 침묵의 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침묵하게 만들었나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개신교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카톨릭이나 정교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성경의 일부로 간주하는 이 시기의 텍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와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와 유대인 모두가 제기하고 실제로 여전히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질문 중 하나는 예언이 그쳤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모스서에서 날이 이를 때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니라 도리어 여호와와 말씀 듣기 위함이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개신교인과 유대인 역시 이것이 선지자 말라기의 죽음과 함께 예언 기간의 끝을 의미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대부분의 개신교, 유대인에 따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결국 이 시대의 일부였던 초기 전통의 일부였던 여러 책을 성경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가톨릭 성서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정교회 전통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성공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권위 있는 경전은 아니지만 경전의 일부로 간주되며, 읽기에 좋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때로는 예배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에게 외경은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그 미스터리를 조금 풀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우리가 얻은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학적 출처에서 한 발 물러서서 물리적 출처, 주로 고고학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아마도 고고학자인 누구에게나 불쾌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지난 몇백 년 동안 그 자체로 발전한 놀라운 과학입니다.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과학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과학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큰 논쟁, 실시간 논쟁이 있습니다. 구약성서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확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고학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는 성경학자 집단이 있습니다. 성경은 편향되어 있고, 성경은 문학적 자료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쳐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전적으로 고고학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은 엄밀한 과학이라고 말하는 논쟁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문학적 출처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다른 쪽보다 그 쪽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에도 여전히 그 용도가 있습니다.

물론 고고학과 관련된 문제 중 일부는 다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해석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고고학, 특히 친구약 중간기의 고고학과 관련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 일부는 우리가 정말로 발굴하고 싶은 유적지 중 일부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의 집 밑을 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 주변을 파헤쳤고 그들은 도시 밑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 전체를 파서 고고학 유적지로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수많은 정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많은 데이터, 많은 유물이 모두 묻혀 있고, 누군가의 집 밑에 묻혀 있는데,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또한 우리가 발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단편적이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 단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깨진 도자기 조각을 힘들게 재조립해야 하고, 깨진 비문, 건물 벽, 그리고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텍스트와 같습니다. 단편적이고 부패하여 작은 조각들로 다시 조립해야 하는 다양한 고고학 발굴지에서 발견되는 약간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단편적인 성격이 증거를 어렵게 만들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통역사가 많은 허점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주관성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멍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조각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배경 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창의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이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주요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정착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등을 알려줄 수 있지만 반드시 정착지의 연대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양한 층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층서학(stratigraphy)이라는 전체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계층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문학 텍스트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고대 세계의 그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발굴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는 고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고 오늘날까지 계속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지가 많아 그 밑이나 주변을 파낼 수 없습니다. 글쎄요, 요즘에는 그 밑을 파헤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내버려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관한 더 많은 고고학적 정보를 갖고 싶어하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쿨란은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으로 인해 오늘날 매우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적지 자체는 정착지였으며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소규모 정착지이거나 사소한 고고학적 관심 장소였습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와 사이트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쿨란은 고고학 유적지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사다(Masada)는 이곳에서 발생한 유대인의 대량 자살과 관련된 낭만적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채굴자, 많은 성서 학자 및 많은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상상력을 사로잡은 장소였습니다. 대지.

그러나 마사다는 로마에 대항한 로마 반란 동안 자유 투사들이 대량 자살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직업 수준이 있으며, 마사다에서는 몇 가지 놀라운 발견이 나왔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 중 하나는

몇 년 전 마사다에서 의도적으로 묻혀 있던 에스겔서의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편은 마른 뼈들의 부활에 관한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아니,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나라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따라서 마사다는 흥미롭고 주목할만한 장소였으며 실제로 우리가 제2성전 유대교라고 부르는 것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끌었던 꽤 많은 텍스트를 산출해냈습니다. 우리에게 고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작가들이다. 이 시대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환상의 비행을 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사용하면 이 역사적 작가들이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고학적 자료보다 더 명백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고학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고 대략 언제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역사 작가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반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는 실제로 고고학 데이터가 포함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캔트.

이러한 역사적 자료 중 일부는 목격자의 작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분 동안 매우 중요한 목격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기록한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인 출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 설명은 선택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일반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적 데이터는 이름 끝에 위대한 이름이 붙은 위대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인의 삶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스의 대부분은 일일 이벤트가 아닌 대규모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자료에서 얻은 그림에도 구멍과 틈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상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확실히 훨씬 더 가치 있고, 제가 어떤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의 고고학적 발견물보다 연대기를 재구성하는 데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출처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투쟁에 관해 이야기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그것이 모두 그리스인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을 미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특히 키루스 대왕에게 마지못해 존경심을 표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설명은 매우 강한 편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약간의 소금과 함께 섭취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쓴 주제와 주제에 항상 호의적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금 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 작가 중 한 명은 헤로도토스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할 무렵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위를 갖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인들에 대해 매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글 쓰는 방식도 훌륭해서 읽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는 여행 중에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 를 들어

보름달마다 늑대로 변하는 마을 사람들 전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내가 그 이야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헤로도토스가 행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인에 대한 그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그의 기록 중 일부가 항상 페르시아 생활과 페르시아 관습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훌륭한 읽기였고, 그는 자신이 쓴 사건과 매우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중 하나일 것입니다.

투키디데스는 흥미로운 사람이다. 투키디데스는 때로 역사의 아버지로 불려왔습니다. 헤로도토스도 그랬지만 더 자주 투키디데스였기 때문입니다. 투키디데스는 신약성서를 읽는 여러분에게 매우 친숙하게 들릴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로 자신의 글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글을 쓰기로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에 대해 썼을지라도 나는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사건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설명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과 매우 흡사하게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투키디데스가 역사 작가들 사이에서 거인이었기 때문에 루크가 투키디데스의 글을 따라 자신의 글을 어떤 의미에서 패턴화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작업은 또한 이 시대의 일부에 걸쳐 있습니다.

그는 주로 그리스 도시 국가 간의 투쟁에 대해 썼지만 페르시아와 일부 유대인 사건도 그의 글에 등장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는 시대보다 꽤 늦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출처를 사용했으며 매우 중요한 출처로 간주됩니다.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 키케로. Cicero는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저작 중 많은 부분이 살아남았습니다.

키케로는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글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꽤 많이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의 일부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Cicero의 저술 중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역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입니다. 그리고 헤스테시우스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교회 교부인 유세비우스처럼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 단편적으로 포함된 작품을 우리에게 전해 준 역사가들입니다. 그의 많은 역사에서 그는 이들 중 일부와 다른 교부들의 말을 인용하여 많은 헬레니즘 철학자들의 단편을 보존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소스입니다.

됐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Flavius Josephus입니다. 서기 37년에서 100년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흉상입니다. 그리고 저 고귀한 코를 보세요. 그러나 요세푸스는 로마에 대항한 대반란에 참여한 유대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인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여러 권의 유대 역사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 점을 알아내시겠습니까? 로마 소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살펴보고 이 사람에 대해 꽤 오랫동안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의 많은 부분이 요세푸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자신이 서기 37년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제사장인 맛디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도 매우 훌륭한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학식으로 율법교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읽고 이것 때문에 약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겸손이 작가들에게 큰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적을 터뜨리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그 점에 있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 율법 교사들을 놀라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자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의 종교적 성장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는 사두개인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은 당시 유대의 주요 종파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성경에서도 이에 대해 듣습니다.

16세에 그는 종교 탐구에 나섰습니다. 그는 다양한 교사들에게 문의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유대 종교의 가르침과 종파와 민족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은둔자와 함께 사막에서 3년을 살았으며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로마인들이 사랑했던 종류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런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실제로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다시피, 나는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지만 조금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은둔자와 3년을 보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바리새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후에 바리새인들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예수님 시대에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유대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서에 많은 것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성 바울이라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회사에 있습니다. 음, 요세푸스의 초기 경력입니다. 요세푸스는 포로된 사제들의 석방 협상을 돕기 위해 서기 64년에 로마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때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나이의 누군가가 그렇게 중요한 임무에 파견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로마에 갔었고, 로마에 있었고, 이 협상에 참여했고, 이 사제들을 석방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난파를 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두가 난파를 겪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는 난파된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서기 67년에 돌아와서 그 나라, 특히 갈릴리가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글쎄, 이 시점에서 전쟁은 불가피해 보이며, 그 나라는 로마인들과의 갈등에 빠질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다른 유대인 귀족들과 협력하여 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요세푸스는 이 전투에서 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는 갈릴리를 변호하는 데 탁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처음부터 반란에 반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가 로마서를 위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저를 그 일에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서 발로 차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반란에 자신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할 거면 잘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는 또한 로마인과의 충돌에 대비하여 자신의 군대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를 변호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원주민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일부를 반대하여 로마군과 싸우려고 큰 군대를 모았다고 합니다. 지역 민병대 지도자 기스칼라의 존(John of Giscala)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아마도 기스칼라의 요한(John of Giscala)이 이 갈등에 대해 자신의 설명을 썼을 것이고, 요세푸스는 그 기록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뭔가요. 생각해보면 로마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처형당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상한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귀족들을 죽이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땅의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참수형은 고귀한 죽음으로 여겨졌는데, 참수형은 대개 아주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로마에 대한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앉아 분명히 정부 연금을 받으며 어떻게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회고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스칼라의 요한 (John of Giscala) 은 분명히 이들 중 하나이므로 요세푸스는 '그가 할 수 있다면 나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세푸스 이야기의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요타파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말 고개를 저으며 '아, 안돼, 안돼'라고 말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는 갈릴리에 있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갈릴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실제로 반란의 온상이었고, 로마인들로부터 유다를 해방시키려는 운동의 진정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 우리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다양한 반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는 요타파타(Jotapatha) 도시를 포함하여 갈릴리의 여러 도시를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저항이 저항의 기반이 됩니다. 로마 군대가 통과하자 많은 도시는 재빠르게 용맹함보다 더 나은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즉시 로마인들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매우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되고, 장비를 갖추고, 매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왔고, 많은 유대인들은 "좋아, 이건 내가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즉시 로마인들에게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저항이 있었고, 저항한 도시 중 일부는 기본적으로 먼지로 변했습니다. 요타파타는 요세푸스가 자신의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의 도시를 요새화했습니다. 로마인들은 47일 동안 그 도시를 포위해야 했고, 요세푸스는 자신이 얼마나 영리했는지, 그들이 그 도시를 방어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결국 일어나는 일은 로마군 장군의 아들인 티투스였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그는 결국 로마 황제가 되었고, 경비병들이 잠든 밤에 성벽을 기어올랐고, 성문을 열어 로마 병사들을 요타파타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47일 만에 그 도시는 로마인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Jotapatha) 시 근처의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동굴에서 무엇을 합니까? 글쎄요, 요세푸스는 확실히, 아시다시피,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로마인들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그토록 압도적인 힘에 항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인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은 '아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더군요. 대신 그들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살 조약을 맺는다.

반면에 요세푸스는 우리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최악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신 이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서로 죽여보자.

요세푸스가 말하는 방식은 마음속에 여러 번 상상해 보았지만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들이 모두 제비를 뽑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짝을 이루었습니다. 제비에 나온 숫자에 따라 그들은 서로의 내장을 찢러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명의 군인이 일어나서 서로를 찢르고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쌍이 서로를 찢러서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요세푸스가 마지막 숫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여기에 전표 같은 것을 쌓아두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 두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은 요세푸스를 찢르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잠깐만요. 여기를 통해 이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신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아시다시피, 로마인들은 매우 자비로운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자비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 민족과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로마인들을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파트너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가서 로마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후 파트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냥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총독, 아니 오히려 로마군을 지휘하는 장군인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는 내가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군대의 장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백성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는 데 당신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나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세푸스는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나중에 그의 다른 책들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다니엘서와 네 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언 능력이 있어서 이 신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은 베스파시아누스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좋아요. 이제 세부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이것에 관해 매우 긴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론의 일부는 요세푸스가 다니엘서를 온 세상을 다스릴 자가 동쪽에서 올 것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요세푸스는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통치자가 동쪽에서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모호한 신탁이 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이것은 물론 베스파시아누스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자신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자,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세푸스를 사슬에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일 당신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고 후한 보상을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 군대와 함께 전진하며 로마군에 항복하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수년 동안 요세푸스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요세푸스의 글은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세푸스는 확실히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매우 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로마로 갑니다. 그는 토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는 로마인들로부터 유대 땅에 대한 토지 보조금을 받았지만 로마에 사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받고 왕궁에 머물렀다.

그리고 물론 그는 많은 늙은 장군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의 첫 작품은 '유대 전쟁'(The Jewish War)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서기 79년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그의 다음 남은 작품인 The Antiquities, The Vita, The Life of Flavius Josephus는 일종의 그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작품이 있는데, 마땅히 평가받아야 할 만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Against Apion'이라는 작품 인데, 유대교를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옹호하기 위한 일종의 변증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유대인 전쟁은 반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기 66년경에 시작하여 서기 73년까지 이어집니다.

요세푸스(Josephus)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주로 요세푸스에 관한 것이지만 그는 자신을 부지런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헌신적인 군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 역사를 본뜬 객관적인 작가라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투키디데스가 그의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쓸 때 흥미로운 점은 그가 그리스어를 잘 몰랐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인데, 이는 당시 유대인,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상황에 대해 조금 알려줍니다. 요세푸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그리스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 자신은 그리스어로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상류층이고 교육을 잘 받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말벌집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특히 많은 신약성서 작가들은 요즘 일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어 교육을 받았는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예수가 헬라어를 모른다고 제안해서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가 헬라어를 몰랐다면 예수님도 헬라어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작품에는 몇 가지 경향이 있다.

우선, 물론 요세푸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작품에서 특히 반란의 책임을 특정 하찮은 성급한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점이다. 자, 이런 일을 한 것은 귀족도 아니고, 잘 자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들인 로마인, 특히 이 시점에서 황제였던 티투스에 대한 아첨하고 아첨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Josephus는 빵의 어느 면에 버터가 발라져 있는지 알았고, Titus는 Captain America와 Superman의 중간쯤 되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는 반란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불충실한 유대인들에 대한 형벌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혈 사태와 성전 파괴에 대한 책임을 바로 자기 백성에게 돌립니다. 고대유물(Antiquities)은 요세푸스가 쓴 또 다른 작품입니다.

이것은 매우 긴 작업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 총독 시대까지 이어지는 유대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이 내용의 대부분은 구약성서에서 전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의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느부갓네살 때인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로마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두 번째로 멸망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놀라운 조직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대한 그의 주요 출처는 성경이며, 그의 관점이 다소 놀랍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읽을 수 없는 내용에 거의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중간기 기록은 외경, 특히 우리가 조금 이야기할 마카베오 1서와 2서와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동료의 작품을 사용합니다. 니콜라스는 실제로 헤롯 대왕의 궁정 역사가였으며 요세푸스는 그의 저작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출처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가 그 출처를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일부 로마 기록에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고대 유물에 대한 그의 설명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 시대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그의 주요 경향 중 하나는 유대인을 고대의 현명한 민족이자 외국 군주의 이상적인 신민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새로운 것은 나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혁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대 물건은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고대 이집트의 기념물을 볼 수 있었고, 이집트인들이 이런 놀라운 고대 고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몇 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최근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조니들 중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는 고대 유물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를 짓는 방법과 이런 종류의 것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점성술의 아버지였습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이런 종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정복당할 때마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을 정복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분명히 전쟁 이야기의 짧은 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티베리아스 판사라는 사람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졌습니다.

티베리아스 재판관은 갈릴리에 있는데, 재판관은 전쟁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읽고 그 일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세푸스의 말을 통해 정의가 말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전쟁에 대해 주로 세부적으로 매우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일반적인 개요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세푸스와 상류층 유대인들은 반란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단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요세푸스를 운명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에 관해 떠돌던 이야기처럼, 그가 태어났을 때 혜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처럼 말이죠. 요세푸스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가 젊었을 때부터 세상의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될 운명이 분명했는지에 대해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gainst Apion 입니다. 그리고 Apion 에 대하여는 고대 유대인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큰 질문은 유대인이 고대 민족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요세푸스가 주로 주장하려는 내용이다.

그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유대인이 고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반부는 로마인, 그리스인, 이집트인, 특히 마네토라는 이름의 이집트인이 유대인은 고대 민족이 아니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유대인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역사가들의 부정확성을 비판하는데, 이는 일종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나병환자였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추방되었다고 말한 이집트인 마네토의 말을 반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판에 일종의 오점을 남기는 종류의 일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아피온의 유대인 비방을 반박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네토(Manetho)에 기초한 출애굽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나귀 머리를 숭배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에는 그리스 장군들, 특히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당나귀 머리를 발견했다는 놀라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숭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발견된 멋진 낙서가 있는데 당나귀 머리 앞에 절하는 유대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 자신의 신을 숭배하는 유대인 동료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낙서는 로마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쨌든 요세푸스는 우리는 당나귀 머리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매년 그리스인 한 명을 제물로 바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또 폼페이우스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본 것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는 제물로 바쳐질 유대인, 아니 그리스인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제발, 감사합니다. 이 끔찍하고 끔찍한 유대인들에게서 저를 구해주세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혈중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 것의 전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인, 특히 그리스 아기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말한 후 결국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그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의 피를 마시고 있었습니까? 물론 그들은 이방인 아기들의 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헐리우드 유명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점은 이것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매우 오래된 종류의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든 우리 두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것 중 하나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고발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것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명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발명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과장된 표현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 면에서 읽기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피아누스에 반대하는 책에서 정말로 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유대 경전의 생산에 대한 논의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경(Apocrypha)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점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이제 저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역사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작품을 쓴 유대인 작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남겼고, 그 중 많은 책이 오늘날까지 살아 남았습니다. 필로는 기원전 20년경부터 서기 50년경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동양세계의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이자 중심지와도 같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일종의 플라톤 학파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 특히 플라톤의 사상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나중에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필로가 그랬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플라톤을 사용한 성 어거스틴에게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의 중요한 작품으로는 Every Good Man is Free, 가이우스 대사관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와 유대인 그룹이 로마로 가서 강제로 로마를 통치하려 했던 칼리굴라 황제와 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갔는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로는 칼리굴라에게 그 계획을 취소시키기 위해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마카베오 1서와 2서는 둘 다 외경에 실려 있는데, 이는 그리스인에 대한 유대인의 반란에 대한 매우 다른 두 가지 역사적 기록입니다. 마카베오 1서는 원래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마도 민족주의적인 문서이고 이 시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민족주의의 언어가 히브리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점에는 아람어가 이미 더 널리 사용되었지만 히브리어는 여전히 국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정말로 소통하고 싶다면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도 그것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어 번역에서만 살아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작품은 유대인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반란을 주도했던 하스모니아 사람들에게는 이 작품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일종의 사두개인적 감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단어는 역사의 현

시점에서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마카베오 1서에 나오는 연설 중 하나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장군이 그의 군대에게 그들이 나가서 죽으면 그들의 이름이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도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 가족들이 그 뒤를 이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후세계나 죽은 자의 부활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초점은 이 시대에 명예의 중요성과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두 번째 마카베오서와 대조됩니다.

마카베오서 2서는 요약본입니다. 외경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그리스에 대항한 이 반란을 여러 권으로 기록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되었으며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책을 읽으면 기독교 순교가 생각난다.

즉, 사람들이 억압에 맞서 굳건히 서도록, 자신들을 신앙에서 분리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맞서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고통의 사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일곱 아들이 고문을 받아 죽도록 내버려둔 유대인 어머니에 대한 놀랍도록 소름끼치는 이야기와 그 고문에 대한 놀라운 세부사항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지은 자들과 그들을 대적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에 관해 이야기하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관점이 좀 더 바리새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기 아들들을 포기한 이 유대인 어머니는 그들이 비록 지금은 죽더라도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아들들을 바친 후에는 명예를 얻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다. 그리고 아들 중 한 명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합니다. “당신들은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부활이 없으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흥미롭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의인은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지만 불의한 사람은 흠속에 누울 것이라는 생각이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본질적으로 그다지 역사적이지 않은 다른 문학적 출처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시대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은 고대 신앙, 고대 문화 등에 대해 밝혀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서 자체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일부 책들은 실제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구약의 특정 책, 다니엘, 에스더, 전도서와 같은 책, 또한 스가랴서의 특정 부분과 같은 다른 책의 특정 부분의 연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기간에 실제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그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어떤 종류의 확실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본문이 성서 중간기에 발생한 상황과 상황에 대해 많은 빛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기간. 다수의 예언 본문은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은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었다고 믿든 안 믿든 이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시대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만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일부 그리스 왕들 사이의 투쟁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 중 일부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샅샅이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경이 나옵니다. 나는 외경을 여러 번 언급해 왔습니다.

외경(Apocrypha)은 모두 유대인 출신의 이야기와 본문을 모아 놓은 것인데,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그리스어 번역판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경에 관해 흥미로운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서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경 중 어느 책에도 외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년 후 초대교회 교부들은 외경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성 제롬의 시대에 이르렀고, 제롬은 외경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는 Apocrypha라는 용어, 즉 Apocrypha라는 문구를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그는 이 책들이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성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라틴어 텍스트에서는 그 책들이 실제로 그의 번역에서 생략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세대는 제롬이 죽자마자 재빨리 다시 제자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롬은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성경으로 간주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은 기원전 40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아마도 실제로 가장 초기의 책은 아마도 기원전 300년쯤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최근의 외경은 아마도 AD 90년경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유대교 문헌이고 성전 파괴와 관련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외경의 본문이 권위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외경을 경전이나 권위 있는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제롬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마틴 루터를 더욱 밀접하게 따릅니다. 그러나 요점은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이러한 작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톨릭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마카베오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들에 광범위하게 의존할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이야기를 개작할 때 그것들에 광범위하게 의존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요세푸스 역시 자신이 이 책들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외경의 내용은 마카베오 1권과 2권 외에 서사, 이야기,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빗 이야기는 아마도 외경의 오래된 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를 극복하기 위해 천사의 도움을 받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작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디스의 이야기는 외국 장군을 유혹하여 그의 머리를 빼앗기 위해 간계를 사용하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그의 머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이봐, 봐봐, 내가 너희 장군을 죽였어"라고 말합니다.

네, 일종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반에스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유디트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유대인의 원칙이나 유대인의 명예를 타협하기를 거부했지만 어쨌든 결국 자신의 민족을 구하러 나온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수잔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수잔나의 이야기와 벨과 용의 이야기. 이것들은 다니엘서에 추가된 내용이다.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 최초의 탐정 이야기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수산나의 경우 일부 사악한 이교도 성직자와 일부 사악한 유대인의 계락을 파악하고 폭로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에스드라스는 에스라의 이야기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이 본문은 일종의 그리스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셋째, Maccabees는 First Maccabees의 전편이며 반란으로 이어진 박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넷째, 마카베오서(Maccabees)는 제2 마카베오서의 이야기를 확장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톨릭 성경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 일부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외경으로 간주하는 다른 컬렉션에 나타납니다. 성경 본문에 추가된 내용에는 에스더서에 추가된 내용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몇 가지 기도문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에스더서 시작 부분의 환상과 에스더서 끝 부분의 환상 해석이 포함됩니다. 아시다시피 에스더서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유일한 책인데, 신구약 중간기의 누군가가 그 사실에 약간 짜증을 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언급도, 희생에 대한 언급도, 경건에 대한 언급도,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글쎄요, 칠십인역, 외경은 그것을 고쳤고 그리스어 버전은 모르드개가 유대 민족에게 닥칠 문제를 예측하는 환상을 보는 시작 부분에 이 환상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모르드개의 매우 긴 기도, 에스더의 매우 긴 기도, 그리고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환상에 대한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사랴의 기도와 히브리 세 어린이의 노래 이야기. 따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한 풀무 가운데서 기도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추가되었습니다. 므낫세의 기도.

열왕기서는 므낫세가 나라를 망하게 한 매우 악한 사람이었다고 알려 줍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고 므낫세가 결국 회개했음을 알려줍니다. 외경에서 우리는 므낫세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놀라운 긴 기도, 매우 시적인 기도를 발견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시편 151편은 시편에 추가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몇 가지 지혜의 텍스트를 얻었습니다.

벤 시라의 지혜(The Wisdom of Ben Sira)는 놀라운 책이다. 원래는 벤 시라(Ben Sira)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의 손자가 '나는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에 대부분 잠언을 기록한 놀라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이 책이 구약의 잠언보다 훨씬 더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품 중 일부는 통찰력이 뛰어나고 다른 일부는 특히 여성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매우 모욕적이지만 아마도 기원전 200년쯤에 쓰여진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창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또 다른

본문이자 이 시대의 또 다른 잠언 모음집입니다. 제 생각에는 Ben Sira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매우 흥미로운 독서입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텍스트인 2nd Esdras 또는 때때로 4th Ezra로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이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 서기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에 의해 전달될 때 분명히 수정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원래 유대교 본문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 책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빛을 제공합니다. 나라가 망하고도 회복하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르가 혼합된 이 바록서를 얻었습니다. 이 책은 때로는 시적이고, 때로는 예언적이며, 때로는 지혜의 본문입니다.

바록의 이름으로 쓰여진 다양한 작품이 담긴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바룩이 이 책을 쓴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매우 흥미로운 읽기가 됩니다. 바룩은 우리가 위경(pseudepigrapha) 또는 위경(pseudepigraphy)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한 예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거짓 비문을 의미합니다.

주로 두 번째 성전 시대에 작성된 저술물은 아마도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헌은 오래전에 죽은 성자의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AD 90년에 기록된 에스라서 4장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유대 또는 유다의 총독이었던 에스라에게 주어진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바록서에도 이 본문이 예레미야 서기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수세기 후에 작성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교회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텍스트를 보존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외경에 있고, 일부는 에티오피아에 보존되고, 일부는 러시아 지역에 보존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가 죽은 자들 사이에 나타납니다. Sea Scrolls이지만 일부 사람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책들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성경인 것처럼 읽습니다. 위경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일부는 1st Enoch를 포함하며 에녹 1서는

에녹의 이름으로 쓰여진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에녹 1서에 대해 꽤 오랫동안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에 관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책은 실제로 신약성경에 인용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에서 그는 주님께서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녹 1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녹서 1서는 아마도 한 세기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쓰여진 복합 본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확실히 예수 이전 시대에 유래되었습니다. 희년서는 사해사본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책이고, 희년의 기록은 일종의 유사 모세 본문인 기록이다.

그것은 모세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며, 역사를 49년의 희년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 사본, 일반적으로, 종종 번역본으로 남아 있는 이러한 텍스트 외에도 발견된 사본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예수 시대 이전에 작성된 텍스트입니다.

Elephantine Papyri에서 일부 텍스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우리는 제논 파피루스(Zenon Papyri)라고 부르는 일부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엘레판틴 파피루스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시대 이후 그리스 제국의 행정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헌들 중 가장 유명한 사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1947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1960년까지 계속된 여러 차례의 후속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텍스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의 주요 부분은 47년에서 6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좋아, 거기에는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70년경까지의 성경 책과 기타 텍스트의 사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텍스트 중 가장 최근의 것일 것입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텍스트 중에는 우리가 사해 종파라고 부르는 그룹의 산물인 종교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들은 에세네파로 식별되는데, 사해 두루마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나중에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텍스트는 나중에 일부 강의에서 모두 이해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본문들이 어떻게 신구약 중기 유대인들 사이에 두드러졌던 문화, 발전, 사상을 조명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상들이 어떻게 신약성서의 세계를 형성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토니 토마시노(Tony Tomasino)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유대 역사 재구성을 위한 자료입니다.